

삼성, 미국 3D TV 시장 “석권”

2010년 1-8월 시장점유율 86.3% ... LED·LCD TV 시장도 주도

삼성전자가 미국의 3D(입체영상) TV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미국에서 팔리는 3D(입체영상) TV 5대 중 4대 이상이 삼성전자 생산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기관인 NPD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3D TV 시장에서 2010년 1-8월 86.3%(수량 기준)의 판매 점유율을 기록했다.

삼성은 미국의 3D TV 시장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디지털 TV 전체는 물론 LCD(Liquid Crystal Display) TV, 평판 TV, LED(Light Emitting Diode) 분야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삼성은 디지털 TV 전체 점유율은 25.1%, LCD TV는 23.3%, 평판 TV는 25.2%, LED TV는 50.7%, IPTV는 56.2%를 차지해 시장주도권을 확고히 하고 있다.

2위와의 격차도 더 벌어져 디지털 TV 전체로는 15.1%p, LCD TV는 11.5%p, 평판 TV는 15.1%p, LED TV는 39.5%p, 3D TV는 78.6%p, IPTV는 42.3%의 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경쟁이 가장 치열한 미국 TV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지키고 있다”며 “시장 리더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0/07>